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 갤럭시노트7 사태 극복 가능...실리콘밸리식 문화 삼성과 안 맞아

해외 석학 3인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단순히 기술적인 결함을 보완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품질 기반 안전성은 물론 임직원 윤리와 도덕성으로 재무장해야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나기마치 교수는 "배터리는 갤럭시노트7뿐 아니라 전기차에도 들어가기에 이번 기획에 기술력을 엄격히 검증하면서 사고원인을 규명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크다. 안전을 중요시하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가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워드화 교수는 "삼성이 갤럭시노트7 사태로 부정적이긴 하지만 대대적으로 브랜드를 알렸다"면서 "소비자 시선을 사로잡을 신제품을 내면 긍정적인 마케팅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버킨쇼 교수는 "삼성전자의 리콜은 도요타 사태와 비슷하다"면서 "똑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면, 삼성도 회복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 전문가들은 삼성이 추구하는 실리콘밸리식 문화 도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버킨쇼 교수는 "삼성 내부에 실리콘밸리식 문화를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삼성의 조직 문화는 연대책임 등 한국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워드화 교수는 "삼성이 실리콘밸리 문화를 도입한다는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시도는) 회사의 성공에 치명적"이라고 했다.

다만 야나기마치 교수는 "삼성이 연구개발 부문에 한해 실리콘밸리식 문화를 도입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